박해진 저축은행 파킹통장 금리 명절 대목에도 여신잔액 챙긴다

작년 11월 여신 연초대비 9.3조↓
대출 감소에 자금조달 필요성 뚝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채권금리↓
입출금 금리 내린 은행권 영향도

저축은행이 파킹통장 금리를 낮추는 추세다. 설 명절 상여금, 용돈 등이 움직이는 대목인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올해 기준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면서 주기별로 금리를 조정하는 파킹통장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파킹통장을 취급하는 주요 저축은행이 금리인하 카드를 빼들었다. 파킹통장이란 은행권 대비 고금리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이다. 주로 저축은행과 인터넷은행 등이 취급하면서 연 3% 안팎의 금리를 적용한다. 유동성과 고금리 이자를 모두 누릴 수 있어 기준금리 인상 시기에 '짠테크족'의 주목을 받았다.

최근 파킹통장 금리를 낮춘 곳은 SBI저축은행이다. 사이다뱅크 입출금통장 금리를 기존 연 3.5%에서 0.2%포인트(p) 내린 연 3.3%로 조정했다. 이어 다올저축은행은 3000만원까지 연 4.0%의 금리를 적용했던 'Fi커텍트 통장'의 금리를 연 3.60%로 낮췄다.

OK저축은행은 100만~500만원 예치금에 적용했던 'OK웃백만통장2'의 금리를 연 4.0%에서 0.5%p 인하했다. 아울러 애큐온저축은행은 '플러스자유예금' 금리를 기존 대비 0.2%p 낮추면서 연 3.9%로 조정했다.

그간 저축은행이 명절을 앞두고 고금리 특판을 출시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행보다. 금융권에서는 연말과 연초, 명절 등을 대목으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금조달 수단이 예적금으로 한정된 저축은행의 경우 은행권 대비 수신에 적극적으로 나선 바 있다.

저축은행이 파킹통장 금리를 낮춘 배경에는 여신잔액 감소가 자리 잡고 있다. 대출 수요가 줄어 들면서 고비용을 수반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저축은행 여신잔액은 106조2555억원이다. 연초 대비 9조3448억원 줄었다.

은행권이 입출금통장의 금리를 낮춘 것 또한 영향을 준다. 올해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채권금리가 하향 조정되고 있는 만큼 은행권 또한 예적금을 활용한 자금 조달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통상 저축은행은 은행권과 차별화를 위해 1%p 높은 수준의 금리를 적용해 간격을 유지한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출이 쪼그라든 만큼 불필요한 이자 비용을 감당하는 수신은 의미가 없다"면서 "은행권과 격차만 벌리면서 파킹통장, 예적금 금리를 조정하는 분위기다"라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서는 파킹통장 대신 예금상품에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올해 저축은행 예금금리 또한 낮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연 4%가 넘는 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른바 '고금리 막차'를 타야 하는 셈이다.

유동성을 확보하고 싶다면 복수의 예금상품에 가입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예금자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한 가지 예금상품에 전액을 납입하는 것이 아닌 1000만원짜리 예금상품을 5개 가입하는 방식이다. 중도해지 시에도 예치기간별 이율을 적용하는 만큼 '예테크'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자산을 분할해 보관하는 것은 전통적인 투자방식이다"라며 "한 번 예금통장을 개설하면 20일 뒤에 재가입이 가능한 만큼 용도별로 자금을 나누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지난 6일 이석용 NH농협은행장과 해외점포장들이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NH농협은행

"글로벌 사업, 수익 창출 위해 노력을"

이석용 NH농협은행장 화상회의
해외 점포장들에 목표 초과달성 주문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이 해외에서 조기사업 추진을 통한 경영 목표 초과 달성을 주문했다.

농협은행은 이 은행장이 지난 6일 해외 점포장들과 화상회의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 행장은 이날 회의에서 "짜임새 있는 사업 추진으로 글로벌 사업 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런던과 싱가포르 등 신규 네트워크 확충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본립도생(本立道生·기본을 세워야 길이 생긴다)의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한다면 내실 있는 성장을 통한 미래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협은행은 현재 미국, 호주, 중국, 베트남 등 8개국 11개 해외 점포를 운영 중이다. 2030년까지 글로벌 부문 당기순이익 1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이달 분양하는 서울 정비사업 단지 주목

반도건설 서대문구 '경희궁 유보라'
DL이앤씨 강동구 '그란츠 리버파크'

주택시장이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침체를 겪고 있지만 서울에서 나오는 재개발·재건축 단지는 분양 기상도가 '맑음'이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분양 단지는 생활 인프라가 양호한 도심에 자리해 정주여건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원도심에 위치해 입주 후 교통이나 교육, 편의시설 등 생활인프라 조성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완비된 생활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내집마련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달 서울 재개발·재건축 단지로 반도건설은 서대문구 영천구역 재개발을 통해 '경희궁 유보라' 아파트 59~143㎡ 199가구와 오피스텔 21~55㎡ 116실 중 아파트 59·84㎡ 108가구, 오피스텔 21~22㎡ 11실을 일반에 분양한다. '경희궁 유보라'는 서울 4대문 안 최중심 입지로, 3호선 독립문역과 5호선 서대문역이 도보거리에 위치한 더블역세권 단지다. CBD·YBD·GBD 등 서울 3대 업무지구로 빠른 출퇴근이 가능하고, 도보거리에 금화초가 자리하며 경기초, 동명여중, 인창중·고 등이 주변에 위치한다.

'경희궁 유보라' 투시도.

강동구에서는 DL이앤씨가 성내5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그란츠 리버파크' 36~180㎡ 407가구 중 327가구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 5·8호선이 지나는 천호역이 가까워 잠실, 광화문, 여의도 등으로 이동이 편리하고, 현대백화점, 이마트, 강동성심병원 등 편의시설이 가깝다. 풍납근린공원과 올림픽공원 등 풍부한 녹지공간도 갖춰져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병원-환자 짜고 가짜 입원… 금감원, 보험사기 조사 착수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사건 3건에 대해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이나 브로커 조직과 연계해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고 있다"며 "의사나 전문 브로커가 공모해 수백명 이상의 환자로 허위의 진료 영수증 등을 발급해 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수법"이라고 전했다.

공동조사 사건으로는 공·민영 보험금을 둘 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우선 선정했다.

먼저 병원이 환자 200여명과 공모해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을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다.

병원이 환자 400여명과 공모해 실제로 고가의 주사치료를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 허위의 통원치료 등으로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받아간 사례도 있었다.

이와 함께 비의료인이 병원 4곳을 개설한 후 병원과 브로커, 환자가 공모해 미용시술을 받았으나 도수치료 등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험금과 요양급여를 가로채기도 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다른차량 운전시 특약가입 확인해야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범칙금 6만원'

손보협 '설 연휴 보험 활용법'

손해보험협회가 설 연휴 보험 활용법을 안내한다.

손해보험협회는 설 연휴 기간 중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고 보험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보험 정보를 안내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자동차 운행 등 일상생활 사고 상황에 대비한 보험 활용법을 제공한다.

◆ 쏠쏠한 보험상품 4가지

연휴기간 다른 차량 등을 운전할 시 자동차보험 특약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운전자의 범위 등은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계약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보험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상이 개시된다. 새로운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으려면 출발 전날까지 보험사 콜센터 전화 및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보장 가능하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살펴봐야 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예기치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한다. 주로 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돼 있다.

여행자보험은 국내·해외여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장한다. 설 연휴 기간 중 국내 및 해외 장거리를 여행하거나 이동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등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도 있다. 각종 재난이나 일상생활 사고에 대비해 지역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주소지의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에 보상 여부를 문의하면 된다.

◆ 유용한 보험정보 3가지

자동차고장 긴급 발생시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예상치 못한 자동차고장 긴급 발생 시 해당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전화하면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로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할 경우 과실비율정보포털을 참고하면 된다.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찾아볼 수 있다. 국내 유일 공식인정기준으로 영상·그림·도표를 통해 전문가 상담이 가능하다.

손해보험 관련 정보가 필요하면 손해보험상담센터가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전문성·공정성·신속성을 갖춘 손해보험상담센터를 운영 중이다.

◆ 유의해야 할 3가지

자동차 음주·무면허운전 시 형사처벌과 함께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객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액이 감액되는 등 불이익이 있다.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금지다.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시 15점의 벌점 및 6만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공익신고가 접수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험사기 연루 및 가담에 주의해야 한다. 보험금을 노린 고의사고는 명백한 보험사기다. 사고사실·피해정도를 속이는 것 역시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에 응할 경우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주형기자 gh471@